

복잡해진 아시안컵 16강 한일전...3차전 결과 따라 결정된다

조 1위 올라서고 일본 2위 하면 '맞대결'
 일은 한국 조 3위 가능성 거론하며 찬물

한국이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요르단과 비기면서 16강 한일전 성사 가능성이 복잡해졌다. 일본의 축구 전문 매체는 한국이 조 3위까지 추락하는 경우를 언급하며 사실상 찬물을 끼얹고 나섰다. 우리나라가 남은 조별리그에서 패해 3위로 내려가기를 원하는, 다분히 의도가 담긴 분석이다.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21일(한국시간) 현재 아시안컵 조별리그 E조에서 1승1무(승점 4)의 요르단(+4)에 밀려 조 2위를 기록 중이다. 한국(+2)은 요르단과 승점은 같지만 득실차에서 밀린다. 한국은 지난 20일 요르단과의 맞대결에서 승리했다면 조기 16강 자격 진출은 물론, 조 1위 도약까지 가능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도 23위인 한국이 87위인 요르단을 한참 앞서는 만큼 쉽게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됐으나 2-2 무승부에 그쳤다. 경기 종료 직전까지 끌려가다가 막바지 상대 자책골로 승점 1을 어렵게 획득했다.

요르단전 직전까지는 16강에서 한일전이 성사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지난 19일 일본이 이라크에 1-2로 패배해 조 1위가 불가능해졌다.

우리나라가 조 1위로 16강에 오르고 일본이 조 2위가 되면 16강 한일전이 열리게 된다. 이번 대회 대진표상 일본이 속한 D조 2위는 E조 1위와 맞붙는다.

그러나 한국이 요르단과 비기면서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생겼다. 한국은 여전히 조 1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예상대로 16강에서 한일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조 2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할 수도 있다. 이때는 16강 한일전은 열리지 않는다. E조 2위는 F조 1위를 만난다. 현재 F조에서는 '중동의 강호' 사우디아라비아가 조 1위가 유력하다고 평가받는다.

이번 대회는 조 3위로 16강에 오른다. 각 조 3위 중 상위 4개 팀이 토너먼트에 오르는 구조다. 한국도 3차전인 말레이시아전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타 구장의 약제까지 겹치면 조 3위로 16강에 오를 수 있다.

이에 일본 매체 '사커다이제스트'는 "일본이 2위로 올라가면 16강 상대는 바레인일 수도 있다"며 "(3차전에서) 바레인이 요르단에 승리하고, 한국이 말레이시아전에서 패배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의 주장처럼 3차전이 진행된다면 E조 1위는 2승 1패(승점 6)의 바레인이 차지한다. 그리고 나란히 패배한 한국과 요르단은 함께 1승1무1패(승점 4)를 기록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승점이 같으면 승자승으로 순위를 나누는데, 한국과 요르단은 무승부인 까닭에 해당 규정으로 구분할 수 없다.

이때는 득실 차를 가린다. 1차전에서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4-0 대승을 거둔 요르단이 한



20일(현지시각) 카타르 도하 알투마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2023 카타르 아시안컵 E조 조별예선 2차전 요르단과 대한민국의 경기, 2대 2 무승부로 종료 후 위르겐 클린스만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이 선수들과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국보다 조금 더 우위를 점하게 된다. 한국과 요르단이 같은 점수 차로 패배하면 한국은 3위로 떨어진다.

16강 한일전 성사 여부는 오는 25일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3차전을 통해 결정된다. 그 전에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 24일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와 조별리그 마지막 3차전을 치른다.

이 경기에서 인도네시아가 일본을 상대로 승리한다면 일본이 조 3위로 추락해, 한국의 순위와 상관없이 16강에서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



15일 (현지시각) 카타르 도하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E조 조별리그 1차전 대한민국과 바레인의 경기 시작 후반, 손흥민이 옐로카드를 받고 있다.

7장으로 늘어난 옐로카드...클린스만호 '경고' 초비상

요르단전서 오현규·황인범 경고 추가

64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클린스만호의 옐로카드가 더 늘어나면서 경고 관리에 초비상이 걸렸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20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알투마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요르단과의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E조 2차전에서 2-2로 비겼다.

1승1무(승점 4)가 된 한국은 요르단과 승점이 같지만, 득실 차에서 밀려 조 2위에 자리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3위인 한국은 예상치를 깨고 87위인 요르단에 고전했다.

손흥민(토트넘)의 페널티킥 선제골로 앞서 갔으나, 이후 2골을 내준 뒤 후반 추가시간 상대 자책골로 겨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2연승으로 16강 진출을 조기 확정하려던 클린스만호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대표팀은 바레인과 1차전에서 박용우(알아인),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이기재(수원), 조규성(미트윌란), 손흥민(토트넘) 5명이 경고를 받았다.

이에 요르단전에서 대량 득점으로 일찌감치 승기를 잡은 뒤 바레인전에서 경고받은 선수들이 옐로카드를 받아 경고 누적으로 오는 25일 말레이시아와의 3차전에 결장하고 토너먼트부터 카드 부담 없이 나설 생각이었다.

하지만 요르단과 비기면서 '카드 세탁' 기회가 날아갔다.

후반 추가시간 동점골이 나오기 전까지 추격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오현규(셀틱), 황인범(츠베스다)마저 옐로카드를 받았다.

이로서 클린스만호에서 경고를 받고 있는 선수는 총 7명이 됐다. 이 중 대부분이 주축 선수라 부담이 더 커졌다.

이들 7명은 말레이시아전에서 옐로카드를 또 받으면 경고 누적으로 16강전에 뛰지 못한다.

아시안컵은 조별리그 1차전부터 8강까지 경고를 한 차례 받으면 4강 이후 경기가 사라진다. 하지만 8강까지 서로 다른 경기에서 경고 2장이 누적되면 4강전에 출전할 수 없다.

말레이시아전을 경고 없이 넘겨도 16강과 8강에서 경고 한 장이 있는 선수 중에 또 옐로카드가 나오면 그다음 경기에 결장한다.

토너먼트부터 경기가 이겨야 다음 경기를 할 수 있어 경고 관리보다 승리가 중요하지만, 우승을 목표로 한 클린스만호에 주축 선수 이탈은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뉴스

고향서 꿈꾸는 '부활'...서건창 "KIA의 부족한 부분 채우겠다"

광주서 초·중·고 나온 서건창, 고향팀 KIA와 계약... "팀 우승에 함께하는 게 목표"



베테랑 내야수 서건창(35)이 고향팀 KIA 타이거즈에서 재기를 노린다.

지난해 11월 소속팀 LG 트윈스에서 방출된 서건창은 장고 끝에 KIA가 내민 손을 잡았다. 서건창은 지난 15일 KIA와 총액 1억 2000만원(연봉 5000만원·옵션 7000만원)에 계약했다.

서건창은 최근 뉴스와 통화에서 "KIA에서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기회를 주신 만큼 부응할 수 있도록 잘해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08년 처음 1군 무대를 밟은 서건창은

13시즌 동안 LG와 키움 히어로즈에서만 뛰었다. 과거 KIA 유니폼을 입은 경험은 없지만, KIA의 연고지인 광주가 서건창의 고향이다. 서건창은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광주에서 다녔다.

KIA와 새 출발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묻는 말에 "외부에서 봤을 때 KIA가 전력에 좋은 팀이라고 생각했다. 또 어릴 때 광주에서 나고 자란 부분도 계약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KIA만 서건창을 원했던 것은 아니다. 서건창이 LG에서 방출된 뒤 친정팀인 키움이가 가장 먼저 동행을 제안했다. 서건창은 키움 시설에 최우수선수와 골든글러브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타격왕, 최다 안타 타이틀을 거머쥐는 등 전성기를 누렸다.

고향육 키움 단장은 "방출 소식을 접하고 바로 서건창에게 연락했다. 선수 본인도 팀, 팬들을 위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며 영입 의사를 표했으나 끝내 재결합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한 서건창은 "키움에서 먼저 연락과 함께 제안을 해주

셨다. 시간이 지난 후에도 기다려주셔서 감사했다"며 "여러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 KIA를 선택하게 됐다"고 전했다.

KIA는 서건창의 쓰임새에 주목하고 있다. 심재학 KIA 단장은 "주전 2루수 김선빈이 있지만, 백업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어린 후배들을 위해 플레이코치 역할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서건창의 역할을 기대했다.

서건창은 "팀이 원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할 준비가 돼 있다. 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난해 LG가 29년 만에 통합 우승을 달성하는 감격을 누렸으나 서건창은 엔트리에서 빠져 현장에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없었다.

서건창은 올해 KIA의 7년 만의 우승 도전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그는 "팀 우승에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며 "다른 목표들은 스포프캠에 가서 하나씩 세워야 할 것 같다. 차차 목표를 정하고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서선욱기자

전남도, 동계 전지훈련 24만명 "스포츠 성지로 뜬다"



문화한 날씨에 전해의 경관과 풍부한 먹거리를 갖춘 전남이 동계 전지훈련의 성지로 뜨고 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지훈련과 각종 스포츠대회로 952개 팀, 연인원 24만 명의 선수가 전남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선수단과 가족이 전남에 체류하면서 숙박과 마트, 관광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227억 원에 달했다.

동계(12월~2월) 전지훈련 인원은 2020~2021 시즌 6만 명에 불과했던 것이 2021~2022 시즌 18만 명, 2022~2023 시즌 34만 명으로 매년 수직 상승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시즌 코로나19 이전인 2019~2020 시즌(25만 명)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이는 풍부한 관광자원과 온화한 기후, 맛갈스런 남도음식을 두루 갖춘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목포종합경기장, 순천 팔마종합운동장, 광양

전남도래근구장, 강진 축구전용경기장, 해남 우슬경기장, 영광스포티움 등 우수한 시설에 다 전국체전을 앞두고 2100여 억 원을 들여 대대적으로 신축 또는 개보수한 것도 한몫했다.

전남도는 유치 실적이 우수한 시·군을 선정해 체육시설 개·보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시·군과 협조해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설 방침이다. 시·군에서도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실제 장흥군은 유소년 축구 30개 팀, 연인원 7000여 명의 선수단을 유치했고, 15명 이상 팀에게 2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팀별 전남도우미를 지정해 지역에 머무르는 동안 불만 사항을 최소화했다.

광양시는 탁구, 축구, 육상, 야구, 수영, 태권도 등 6개 종목 174개 팀, 연인원 3만6000명을 유치할 예정이고, 해남군은 축구, 육상, 야구 등 6개 종목에 46개 팀 연인원 1만3000여 명을 유치했다.

완도군은 배드민턴, 축구 등 5개 종목 32개 팀, 연인원 1만2000여 명을 유치할 예정이고, 지난해 개장한 해양유아센터를 활용할 수중운동, 수업마사지 등 치유테라피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군별로 체육시설 사용료 할인이나 면제, 훈련비 지원, 관광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희기자